[the300]  
  
  
  
[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헌등한 뒤 합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윤석열 대통령이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 오전 경기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 공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6일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합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 대축제와 삼대화상 다례재를 마음을 다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광불, 가섭불, 석가불 3여래와 지공 선사, 나옹 선사 2조사의 사리가 함께 봉안된 사리로서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하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 2004년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 사실을 처음 확인한 후 조계종을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지만,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저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1년에 걸쳐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신 끝에 지난 4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뤄졌다"며 "큰 역할을 해주신 진우 총무원장님과 대덕 스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산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환지본처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오래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냈다. 부처님의 가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정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사리 반환에 김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 올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 순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회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4000여명이 참석했다. 정·관계에서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